

중앙아시아 고려말을 찾아 떠난 여정

이기갑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일없소

1999년 여름, 난생처음으로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였다. 연해주에 살던 우리 동포들이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 떠나던 중앙아시아로 옮겨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 사람, 즉 고려 사람들의 말을 조사할 겸 이 지역을 찾았던 것이다. 김포공항에서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니 여섯 시간 만에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 도착하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중앙아시아를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김포-알마티’의 비행기는 일주일에 두 차례밖에 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지 비행기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 그 지역에 선교하러 떠나는 기독교인들이었다.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 겸 봉사 활동을 떠났다가 인질로 잡혀 죽임을 당한 기독교 선교사가 화제가 된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일찍부터 이처럼 선교 활동에 나서고 있었던 것이다.

저녁 10시경 비행기는 알마티 공항에 도착하였다. 생소한 곳이라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세관을 통과하게 되었다. 세관 신고서에는 가지고 있는 외국 돈을 신고하게 되어 있었다. 마침 조사 비용을 달러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 액수를 적었다. 그런데 세관원은 내 신고서를 보더니 갑자기 지갑을 보자고 했다. 신고한 액수가 맞는지 직접 돈을 세어 보겠다는 것이다. 지갑을 보자는 세관원은 처음인지라 잠시 당황하였지만 지갑을 건네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지갑 안에는 2,000달러 정도의 미국 돈과 약간의 한국 돈이 있었다. 세관원은 달러를 세어 보다가 갑자기 20달러짜리 한 장을 빼내더니 “No problem?”이라고 묻는다. No problem? 그 돈을 자기가 가져가도 괜찮은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큰 소리로 “No!”라고 외치자, 이 세관원은 돈을 다시 집어넣더니 이제는 달러를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세기 시작한다. 그러더니 신고서에 적은 액수와 지갑 안의 돈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관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겠다고 했더니 이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거야말로 완전히 날강도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우리 일행 4명 가운데 3명은 모두 70달러를 카자흐스탄 세관원에게 빼앗겼다. 당시 카자흐스탄 대학 교수의 한 달 봉급이 100달러 정도 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그날 하루 서울에서 오는 비행기 한 대에서 알마티 공항 세관원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거둬들인 것일까? 너무도 황당하고 무서운 경험을 한지라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까지 하였다. 우리 일행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마침내 악몽의 알마티 공항을 빠져나왔다.

2003년, 다시 카자흐스탄을 찾을 기회가 생겼다. 이때도 목적은 고려 사람들의 언어를 조사하는 것이었지만 1999년의 기억도 있고 해서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다행히 알마티 공항을 빠져나올 때까지 이전과 같은 부패 세관원은 만나지 못했다. 그동안 이 나라도 많이 깨끗해졌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역시 비행기는 밤 10시경에 도착하였고,

알마티 공항에서 시내에 이르는 도로의 가로수는 얼음꽃으로 반짝반짝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한겨울에 알마티를 찾았던 것이다.

며칠 동안의 조사를 마치고 카자흐스탄을 떠나게 되었다. 얼마 전에 카자흐스탄을 방문했던 사람이 가방에 넣어 두었던 디지털카메라를 잃어 버렸다고 해서 녹음기 등 중요한 물건들은 직접 비행기 안에 가지고 들어갔고, 화물로 맡긴 가방 안에 든 것은 옷가지 정도가 전부였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수하물을 찾고 일행들과 헤어진 뒤 우연히 가방을 열어 보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가방에 넣어 두었던 파카가 사라진 것이 아닌가? 아뵘싸! 카메라나 녹음기 같은 귀중품은 엄두에 두었지만 설마 입던 옷을 훔쳐 가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다. 가방을 잘 잠그지 못한 내 탓도 있었지만, 이제 보니 그 추운 카자흐스탄의 날씨 때문에 아마도 공항에서 수하물을 다루는 일꾼들이 가방 안의 두툼한 거위털 파카를 탐냈던 모양이었다. 내 파카를 가져간 사람이 누구지는 모르지만 아무쪼록 따뜻하게 입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No problem?’ 카자흐스탄을 떠올릴 때마다 언제나 생각나는 이 말을 우리말로 가장 정확히 옮긴다면 ‘일없다’가 될 것이다. 중앙아시아 고려말에서도 흔히 쓰이고, 함경도나 평안도 등 북한 지역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이 말은 ‘괜찮다’라는 의미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여행에서 돌아온 뒤 그때 만났던 할머니들에게 국제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으면 그네들은 한결같이 “일없소, 우리 일없이 사오”라고 대답하신다. ‘아무 탈이 없이 잘 지낸다’는 뜻이다. 그러나 전라도에서는 똑같은 말을 전혀 다르게 사용한다. 예를 들어 “너는 머털라고 일없이 그런 것을 모투냐?”(=너는 뭐 하러 쓸데없이 그런 것을 모으니?)라고 물을 때에는 ‘특별한 이유나 목적 없이’ 또는 ‘괜히’의 뜻이다. ‘헐 일 없이’라는 말이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밖에도 “일없는 사람들이 고런 디를 땡 기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땡기겠소?”라고 할 때의 ‘일없는’은 ‘할 일이 없어 시간이 많거나 걱정 근심이 없는’의 뜻을 갖는다. 또 “제가 어깨 주 물러 드릴까요?”라고 애교를 떠는 딸아이에게 “일없다!”라고 대답했다 면, 그때의 아버지는 심기가 몹시 불편한 상태에 있었음이 틀림없다. 이처럼 ‘일없다’는 경우에 따라 고려말처럼 ‘괜찮다’의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말하는 사람의 못마땅함이 잔뜩 담긴 말로 해석되기도 한다.

2. 아שמ체이오

우리에게는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이 마땅히 이웃집에 음식을 돌려야 하는 풍속이 있다. 무릇 어느 문화에서나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에게는 일종의 기득권이랄까, 텃세라는 것이 있는 법이니, 이는 새로 그 권역에 들어오는 사람이 음식을 대접하여 인사치레를 함으로써 텃세를 무마시키고 함께 잘 지내보자는 뜻이 담겨 있는 일종의 신고식에 해당하는 풍속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풍속이 자연의 이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여, 이 사 떡을 받는 사람이 그저 그 인사치레를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는 것 또한 우리네 정서이다. 바쁜 와중에도 이웃을 챙겨 주는 마음에 그저 미안하고 감사할 따름이다. 이런 때에 쓰는 말로 전라도말에는 ‘아심찬허니’ 또는 ‘아שמ찮게’가 있다. “뭘 이런 것을 아שמ찬허니 갖고 오신 게라우?”처럼 쓰이는 이 말의 뜻은 아마도 ‘받기가 송구스러울 정도로 고맙게’ 정도일 것으로 짐작되는데, 오늘날에는 거의 사라진 말로 전라도 지역의 젊은이들 대부분은 난생처음 들어 본 말일지도 모른다.

1999년에 카자흐스탄을 찾아 그곳 고려 할머니들과 함께 고려말을 조사하면서, 하루 일이 끝나고 돌아갈 때쯤이면 고마움의 표시로 미국 돈 10달러씩을 드리곤 했다. 우리로서는 별로 큰돈이 아니지만 카자흐스탄 대학 교수의 한 달 봉급이 100달러이니, 연금에만 의존해 사시는 고려 할머니로서는 적지 않은 액수일지도 모른다. 이 돈을 받으신 할머니들이 으레 하시는 말씀이 바로 “아슴채이오”였다. 물론 ‘아슴채이오’의 모음 /ㅐ /에는 콧소리가 없힌 것이어서 글로 쓰면 그 말맛이 그대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아슴채이오’야말로 전라도말 ‘아심찬허니’와 그 기원이 같은 것이다. 전라도와 카자흐스탄의 그 엄청난 거리,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아심찬허니’와 ‘아슴채이오’는 우리가 한겨레임을 여실히 보여 주는 징표였으니, 그것은 마치 수십 년 만에 만나게 된 이산가족들이 서로를 확인하기 위해 오직 가족만이 알 수 있는 특유한 흉터, 버릇을 묻고 물어 찾고자 하는 것과 다름없다.

중앙아시아 고려말의 ‘아슴채이오’와 전라도말 ‘아심찬허다’에 대응하는 표준말은 ‘안심찮다’이다. 국어사전에는 ‘안심찮다’를 ‘남에게 폐를 끼쳐서 미안하다’로 의미를 풀이하고 있어, 의미와 형태상으로 방언형과 완전한 대응을 보인다. ‘안심찮다’는 물론 ‘안심하다’의 부정형으로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와 같은 기본적 의미에서 출발한 낱말이다. 남으로부터 호의를 받아 송구스럽고 미안하여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는 뜻이니, 이것이 확대되어 단순히 ‘고맙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표준어의 ‘안심찮다’는 단지 사전에만 실려 있을 뿐 실제 사용되는 예가 거의 없는 듯하니,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고려말의 ‘아슴채이오’와는 그 위치가 다르다고 하겠다.

3. 흘글거리고 사오

알마티에서 만난 많은 제보자 가운데 아직까지 안타까운 마음이 남아 있는 분은 신로사 할머니다. 신 할머니는 당시 일흔네 살이었고, 자식도 없이 혼자 살고 있었다. 연해주 지방에서 태어난 신 할머니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가 개가하면서 큰아버지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러다가 열 살 무렵 중앙아시아로 실려와 집단 농장에서 고된 일을 하며 살게 되었다. 어찌어찌하여 결혼은 하였지만 낳은 딸은 죽어 버렸고, 남들의 조언에 따라 입양한 자식들은 성장한 후 모두 제 살 길을 찾아 멀리 떠났기 때문이다. 신 할머니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신로사 야. 자식 한내 딸으 하나 마흔다서 해 낳다가 그저 그것두 채 사지 못하구 죽구. 그래 이날 이때까지 거저 이래 헐헐 혼자 혼자 이래 있소. 고상~느 그 어간에 말꺼 없소. 지게 야 더 어디다 말할 데 없지. 남들은 불부게 이렇게 살지라도 어시 사랑~이란 거 모르지. 남편이 사랑~이란 거 모르지. 자식 사랑~이란 거 미네 없소. 야. 그래 어떤 적에 느 남들이 이래지. 냄이 자석으 재리울 그렇다 해서 그래 냄이 자석으 내서으 재레왔소. 딸 한나 아들 둘으 재레왔소.

= 예, 자식 하나 딸을 하나 1945년에 낳았다가 그저 그것도 채 살지 못하고 죽고 그래 이날 이때까지 그저 이렇게 힘들게 혼자 혼자 이렇게 있소. 고생은 그 무렵에 말할 것 없소. 그것이야 더 어디에다 말할 데 없지. 남들은 부럽게 이렇게 살지라도 부모 사랑이란 것 모르지, 남편 사랑이란 것 모르지, 자식 사랑이란 것 전혀 없소. 예. 그래 어떤 때에는 남들이 이러지. 남의 자식을 키우면 그렇다고 해서 그래

서 남의 자식을 내가 셋을 키워 왔소. 딸 하나 아들 둘을 키웠소.

신로사 할머니의 말은 모두 함경도 방언에 바탕을 둔 고려말이다. 그래서 함경도 방언과 함께 러시아말도 눈에 띈다. 밀줄 친 ‘미네’가 바로 그 러시아말로 ‘전혀’의 뜻이다. 그 밖에 표준어와 비교해 봐도 다른 말들이 많이 눈에 띈다. 1945년을 ‘마흔다섯 해’라고 말하는 것이 특이하고, ‘부럽다’를 ‘불부다’, ‘기르다’나 ‘키우다’를 ‘재리우다’ 등으로 말하는 것은 모두 함경도 방언의 모습을 보인다. 또한 ‘힘들다’는 뜻으로 ‘헐헐하다’라는 독특한 말을 쓰기도 한다. ‘헐헐하다’는 ‘결결하다’라고도 하고, 힘들게 지내는 모양을 형용할 때는 ‘흘글거리다’라고 하기도 한다. 역시 신로사 할머니의 말 속에 이러한 표현이 나타난다.

[신로사 고생~느 더 말 없소. 야 내 고상~느 어렸일 때부터 이때꺼정 일흔네살으 먹을 때꺼정 그저 재빌루 그저 흘글거리구 사오. 개 이래 말으 내 말으 하는 것 알아들겠지?

= 고생은 더 말 없소. 예 내 고생은 어렸을 때부터 이때까지 일흔네 살 먹을 때까지 그저 스스로 그저 힘들게 사오. 그래 이렇게 말을 내 말을 하는 것 알아들겠지?

할머니는 혼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홀로 죽음을 맞지 않을 까 늘 걱정하신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에는 대문을 활짝 열어 놓고 지낸다. 혹시 몸이 아파 죽음을 맞이할 경우, 지나가는 사람이나 이웃 사람들이 자신의 주검을 거두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 다시 신 할머니의 말이다.

[신로새 일흔너인 게 어떡 적에느 아픈 때도 있지야~? 아픈 때 있으
아무 사람도 없다가나이 빈집에 있소. 인데 이 셋가에 딱 붙여서 괴래 있
소. 괴래 모진 앓을 적에느 대문 들어오는 문 싹 열어 놓소 내. 아~ 니 곁
오. 혹은 괴래두 그 안에서 숨 없이 살다가 혹은 죽은 녀에느 밋 칠이 아
~니 뭘 한질 아~니 내 멩기무 혹은 타국 사람이라도 문을 열고 들오라는
이거 개 동삼 같은 때느 벌써 우리 깔립까 여가레야~ 자리 없잖겠? 사
람 발자국들이 없으무 그 쏘시에뜨 노치네들이 거그 와선 어부작으 치
오. 어 있는가 없는가 괴래 그래 그래 나가서 있다 하무이 어째 니 상기도 일
어나서 눈으 치재~ 였냐 이럼 누가 치겠소? 칠 사람 없지. 야 괴래 어떡
적에느 쏘시에뜨 그 러시아 사람들로 그 들오는 질으 쳐주구 어떡 적에
느 그게 다 녹아 절로 빠질 때꺼져 이르게 그렇게 내 시장~ 있소.
= 일흔넛인 것이 어떤 때는 아플 때도 있지. 아플 때 있으면 아무 사
람도 없으니까 빈집에 있소. 그런데 식당방(?)에 딱 누워서 그렇게 있
소. 그래서 모질게 앓을 때에는 대문 들어오는 문 싹 열어 놓소. 내가
끄지 앓소. 혹은 그래도 그 안에서 숨 없이 살다가 혹은 죽을 때에는 며칠
아니 되면 내가 한길 다니지 않으면 혹은 타국 사람이라도 문을 열고 들
어오라는 이것 그래 겨울 같은 때에는 벌써 우리 셋문 쪽에 자리 없잖
겠소? 사람 발자국들이 없으면 그 이웃 노인네들이 거기 와서는 큰소
리를 치오. 어 있는가 없는가? 그래 그래서 나가서 있다 하면 이 왜 너
아직도 일어나서 눈을 치우지 않았니? 그럼 누가 치우겠소? 치울 사
람이 없지. 야, 그래 어떤 적에는 이웃 러시아 사람들이 그 들어오는
길을 치워 주고 어떤 때에는 그게 다 녹아 저절로 빠질 때까지 이렇게
그렇게 내 지금 있소.

위의 구술 발화에서도 러시아말이 두 차례 쓰였다. 대문에 있는 작

은 문, 또는 울타리에 있는 쇳문을 가리키는 ‘칼립까’와 ‘이웃’을 뜻하는 ‘쏘시에뜨’가 그것이다. 그 밖에 흥미로운 고려말로는 ‘여가리’와 ‘어부작’을 들 수 있다. ‘여가리’는 ‘부근’이나 ‘근처’의 뜻을 갖는 낱말인데, 아마도 공간을 뜻하는 ‘넙’에 접미사 ‘-아리’가 붙은 말로 추정된다. 한편 ‘어부작’은 동사 ‘치다’와 어울려 쓰이는데 문맥으로 보아 ‘큰소리를 치다’ 또는 ‘악을 쓰다’ 등의 뜻을 나타낸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방언을 조사하면서 우리는 단순히 그 지역의 말만을 조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흔히 제보자의 삶을 엿보게 된다. 방언 조사 과정에서 만난 많은 할머니들은 자신의 고단한 삶이나 고생했던 일들을 책으로 묶는다면 수십 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한다. 이 점은 이국땅을 떠돌며 살아야 했던 고려 할머니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아니 어찌면 고려 할머니들의 삶이야말로 파란만장한 영화와 같은 것이 대부분일지 모른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우리 민족이 겪은 고난과 격동의 현대사에 다름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중앙아시아의 고려말을 조사하면서 겪은 조사자의 여정은 곧 우리 민족이 겪은 현대사의 단편을 간접 체험하는 귀한 기회이며 보람이었음이 틀림없다.